

현대자동차 기술직 신입 공채 여성 0명

노조·지부·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 “채용과정 성차별 없음 증명하라”

금속노조와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기술직 신규 채용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노동 공간을 보장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3월 29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에서 ‘현대차 기술직 부문 신입 공채 여성 0명, 2023년엔 달라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창사 이후 한번도 기술직 부문에 여성노동자를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2일부터 2년에 걸쳐 7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만에 대규모 채용 소식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채용 서버가 다운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현대자동차 기술직 신규 채용은 2013년 4월 이후 10년 만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세계 3위를 달성한 기업이지만, 생산공장 기술직 공개 채용에서 여성을 선발한 사례가 없다” 라며 “현대자동차는 성별을 근거로 공정하지 못한 기술직 채용을 했다” 라고 꼬집었다.



권수정 금속노조 여성위원장은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채용부터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현대자동차는 공채 때 단 한 명의 여성도 채용하지 않았다” 라며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고발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올해 공채에서 400명을 채용하는데 400명 모두 여성으로 채용해도 현대자동차 여성노동자 비율은 3.5%” 라며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36%다. 현대차는 한국에서만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라고 규탄했다.

김은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성문화실장은 “사내하청 불법과 견 소송 승소 이후 정규직 전환한 500여 명의 기술직 여성노동자가 조립, 검사, 수정 등 현대차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라면서 “생산공정에서 남성노동자와 함께 같은 노

동을 하고 있다. 여성이라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여성이 다른 성별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취급받던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라며 “정의선 회장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과 셀카를 찍는다고 평등한 현대차라고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를 만날 수 있어야 평등한 현대차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 정부와 기업, 채용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에서 성차별 요인 제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주요 항목 성별 데이터 외부 공개 ▲ 현대자동차 기술직 신규 채용 성차별 중단, 공정 채용 ▲ 채용단계별 선발 기준 공개, 응시자 성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현대차 신입공채 과정 중 성차별이 의심된다면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알렸다.

노조, 현대차지부와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현대차에 ‘성차별 조직문화 형성 대상’ 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김기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다우케미칼지회장 영면

지회 교섭 의견접근 나흘 만에 의식 잃어 ... 우리는 동지가 걸었던 선명한 발자국 잊지 않겠다

2019년 ‘비용절감’ 이유로 오랫동안 공장밥을 먹으며 일했던 동료들 내쫓는 회사에 분노해 ‘이렇게 짤릴 수는 없다’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던 김기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다우케미칼지회장이 영면했다. 55세의 아까운 나이이다.

김기수 다우케미칼지회장은 다우자본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2022년 교섭이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다. 진천공장 천막농성, 서울 본사 상경투쟁 등 교섭 타결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어렵게 교

섭 의견접근 했지만 의견접근 나흘만에 의식을 잃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다우자본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탄압이 불러온 참사다”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다우케미칼지회 故 김기수 지회장

장례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젊은 시절 부산에 다니는 공장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불우했던 환경 때문에 몇 번이나 가입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쓰고 지우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렇지만 결국 노조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남았던 노동조합.

그의 나이 55살, 그는 결국 노조를 만들었고 굳은살 배긴 손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금속노조라는 조끼가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진짜 세상도 불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또 누구보다 조합원들을 사랑했던 노동자 김기수.

그가 지난 3월 27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황망한 죽음 앞에 역장이 무너집니다. 수줍게 웃는 동지의 웃음을 더 이상 볼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장례는 동지가 그렇게도 꿈꾸었던 그리고 평등 세상을 향한 출발입니다. 장례위원이 되어주십시오.

걸어온 길

- 1966년 12월 09일생
- 1991년 08월 26일 다우케미칼(구 다우코닝) 입사
- 2019년 10월 6일 금속노조다우케미칼지회 설립
- 2022년 4월 22일 임금 및 단협 교섭개시
- 2022년 10월부터 천막농성 및 서울본사상경투쟁 (미 타결 사업장 지부 집중지원 투쟁)
- 2023년 1월 26일 회사, 구조조정 언급
- 2023년 3월 31차 교섭 의견접근
- 2023년 3월 7일 의식불명



장례위원 기금

단체 3만원, 개인 1만원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 박종우) 356-1525-5001-63

모집마감

2023년 3월 31일 (금)

장례위원 신청

한건희 지부조직부장 (010-5147-5414)



면서 “황망한 죽음 앞에 역장이 문어진다” 라고 분노했다.

지부는 “동지에게 노동자의 존엄을 지킬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문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권리였

다”라며 “우리는 동지가 걸었던 짧지만 선명한 발자국을 잊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김기수 지회장의 장례는 3월 29일 민주노동자장으로 치렀다.